

'옥'에 투영된 한반도 역사·문화사

국립나주박물관·전남도 공동 특별전 '금은보다 귀한 옥'

선사부터 고대 유물 선배...장식문화·해상교역 흔적 조망 전시기간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도 열려

"마한 사람들은 구슬(옥)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중)

선사시대부터 고대의 '옥'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2022년 2월6일까지 기획특별전 '금은보다 귀한 옥'을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전시회는 마한역사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로부터 동양권에서는 옥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금과 비교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한반도 서남부지역에 있던 마한과 백제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고대의 옥을 한자리에 모아 옥의 문화사적 흐름을 소개한다.

한반도의 옥 문화는 신석기시대 처음 출현해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운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진귀한 보물, 옥'에서는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옥들을 소개한다.

옥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석인 옥을 뜻하며 특히, 원석 가운데 연옥과 경옥을 특징적으로 지칭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유리·벽옥·활석·수정·홍옥수·흑옥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장식용 기물과 구슬 또한 옥이라고 불려왔다.

광물의 원석과 실제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제2부 '옥, 장식에서 상징으로'에서는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옥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신석기시대 처음 등장한 옥은 동근고리모양의 장식품인 '결상이식'으로 바닷가를 따라 확인된다는 특징이다.

청동기시대에 옥은 권력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변화했다. 이 시기에는 전문적인 옥 가공시스템도 만들어진다. 또한, 초기철기시대에는 검과 거울, 그리고 옥이 하나의 구성물이 돼 권력자들의 무덤에 부장된다. 과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옥의 가치가 변화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제3부 '해상 실크로드와 옥'에서는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활발하게 교역했던 마한과 백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기원전 2세기에 완성된 해상 실크로드는 바닷길을 따라 아시아 전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망이었다. 마한과 백제 사람들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옥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을 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홍옥수(카벨리안)와 다양한 색상의 유리구슬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로 수입됐다. 마한과 백제권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옥들을 통해 당시 활발한 해상교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4부 '금은보다 귀한 옥'에서는 고대에 화려하게 꽃핀 옥 문화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4-6세기 권력자들은 장식문화를 서로 공유하며 완성시킨다. 다채로운 유리구슬을 바탕으로 비취색의 굵은 옥, 푸른색의 대롱 옥,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채색유리옥과 상감유리옥 등을 조화롭게 엮어 화려함을 빚냈다.

이렇듯 고대에 꽃핀 옥 문화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



사진 위로부터 한반도 출토 모자곡옥, 아산 남성리 출토 검·거울·옥, 연기정재리 출토 채색유리옥

여러 장인을 중심으로 우리의 옥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전시 기간에는 전남도의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가 오는 26일부터 29일 까지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와 연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 '아시아의 옥문화'가 오는 12월17일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온라인 전시관 오픈

공식 홈페이지 통해 이용 가능...관객 특별 이벤트 마련 3D 가상현실 기술로 '5개 전시관·전시 콘텐츠' 완벽재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10월부터는 안방에서도 전시회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1일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시작한 서비스이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3D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5개 전시관 및 전시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360°VR뷰를 통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완벽하게 재현된 전시품을 만나게



온라인 전시 이미지.

된다. 사실감 넘치는 서비스에 마치 실제 현장에 온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방문자 맞춤형 도슨트 기능도 제공한다. 각 전시장 입장 페이지에 영상 도슨트를 배치해

전시관의 주제를 설명하고, 작품의 상세내용 보기 태그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자세한 작품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도슨트 서비스는 4가지 버전으로 준비돼 있으며, 관람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VR공간에 영상해설 콘텐츠를 결합함으로써 몰입도 높은 도슨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입의 장소에 보물찾기 참여 버튼을 배치하고, 관람객들이 이를 발견해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대화상자가 뜬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보물찾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오프라인 전시는 월요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까나



장희구 박사 (427)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의연한 사육신의 기개를 본다. '죄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할 말은 많소이다만, 시 한 수를 남기는 것으로 최후의 증언 한 마디를 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증언처럼 남겼던 섬뜩한 시 한 수를 만난다. 저승길을 가다 주막집도 없는데 오늘밤에는 과연 누구네 집에서 잘 것인가를 떠올린 시상이다. 북을 동동 쳐서 마지막 사람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를 가만히 돌려보니 해가 기울어려 한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오늘 밤은 누구네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까나(受刑詩)로 제목을 붙여 본 오언 절구다. 작가는 매죽軒(梅竹軒) 성삼문(成三問:1418-1456)이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북을 쳐서 사람의 목숨을 저리 재촉하는데 / 머리를 돌려보니 (하늘을 보니) 해가 기울어려 고들 하니 / 오늘 밤은 누구네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까나]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죽음을 맞이하여 마지막 남긴 시]로 번역된다. 성삼문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육신 중에 제일의 반열에 놓인 분이다. 어린 단종을 복위하려는 움직임에 감질이 장인인 정창손에게 알렸고, 정창손은 다시 세조에게 알려 모두 처형을 당했다. 이들을 사육신으로 명명한 것은 남효연이 지은 [추강집]에 나오는 옥신전(六臣傳)에 의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이름하고 있다. 이때 사형장에 든 성삼문이 읊은 시가 텍스트 작품이다.

시인은 시세계의 내면을 음미해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

受刑詩(수형시)

매죽헌 성삼문

북을 동동 두드려 쳐 사람 목숨 재촉하고 머리를 돌려 보니 해가 멀리 기울었는데 황천에 주막은 없다니 오늘밤 어서 잘까.

擊鼓催人命 回頭日欲斜
격고취인명 회두일욕사
黃泉無一店 今夜宿誰家
황천무일점 금야숙수가



지를 읽 어 낼 수 있는 시상이 흰 하게 보인다. 북을 쳐서 사람의 목숨을 저리도 재촉하고 있는데, 머리를 돌려 하늘을 보니 해가 이미 기울어려 한다고 했다. 그만한 절개에 그만한 초연함은 물론 그만한 시심을 읽어 낼 수 있다.

화자는 이제 죽을 후에 부딪히게 될 훗날을 생각해 본다. 황천에는 하나의 주막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밤은 누구네 집에서 잘까나 라고 했다. 역시 대인大人이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완만한 기승전결이라는 시적 구성에 감동하게 된다.

※한자와 어구

擊鼓: 북을 동동 치다. 催人命: 목숨을 재촉하다. 回頭: 머리를 돌려 (하늘을) 쳐다 보다. 日欲斜: 해가 넘어가려고 하다. // 黃泉: 황천, 사람이 죽으면 넘어 간다고 하는 곳. 無一店: 객점이 하나도 없다. 今夜: 금야. 오늘 밤. 宿: 자다. 誰家: 누구네 집. [誰]라는 의문사 때문에 의문문이 됨. (시조시인·문학평론가)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판소리 미디어극 '두 개의 눈' 앙코르 공연

9-10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

전통 판소리극 '심청가'를 현대적 영상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극 '두 개의 눈'이 완성도를 더욱 높여 관객을 찾아간다.

오는 9-10일 예술극장1에서 선보이는 '두 개의 눈'은 판소리에 양악기를 더하고 전통에 전자음악을 가미하며 극에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앙코르 공연을 펼쳐 관객에게 특별한 감흥을 선사한다.

'두 개의 눈'은 심학규의 삶을 들여다보며 심정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심정전의

중심을 '효'가 아닌 맹인 심학규의 '삶'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눈은 멀었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한 사내의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

판소리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영상·조명 등 무대기술은 이 공연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소리꾼, 연주자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출연자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사방으로 움직이며 이동하는 움직이는 발광 다이오드(키네틱 LED)와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무대연출은 공연의 백미다.

공연 입장권은 전석 2만원으로 ACC 누리집(www.acc.go.kr)과 콜센터(1566-8899)에서 예매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Think GOD, Think Jesus Christ

Here & Now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CBS는 진실, 정의, 공의로 바로 서는 올바른 언론이 되겠습니다.
CBS는 하나님이 중심이신 방송이 되겠습니다.
CBS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방송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